

# 일본, 초등생부터 '독도 왜곡 교육'



▲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문제의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내년 신학기부터 일본 초등생들이 한국 영토인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명칭: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영토' 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는 주장이 강조된 새 교과서를 놓고 공부하게 된다.

지난 26일 '매일경제' 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쿄서적, 히혼분교출판, 교이쿠출판 등 3개 출판사의 사회과 교과서 12종(3~6학년용)에 대한 검정을 모두 승인했다.

이번 검정은 2017년 개정된 문부성의 신학습지도요령이 독도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를 '일본의 고유영토' 로 다루도록 하고, 관련 해설서가 독도의 경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 라고 기술하도록 주문한 뒤 처음 실시된 것이다.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중학교는 2021년부터 새 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고등학교는 2022년부터 새 교과서로 배우 예정이지만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이행조치를 통해 시행시점을 3년 앞당긴 2019년으로 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며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 미 '골란고원 이스라엘 주권 인정' 중동 동맹국들 '유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주권 인정 포고문에 서명한 후 중동지역 미국 동맹국들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26일 '뉴시스' 에 따르면 미국의 중동 맹방인 사우디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골란고원 점령지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한 미국 행정부 선언에 단호한 반대와 비난을 표명한다." 고 밝혔다.

미국의 또 다른 중동 동맹국 바레인과 요르단은 각각 외교부 성명을 통해 "미국의 발표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어떤 결정도 골란고원이 이스라엘이 점령한 시리아 영토라는 사실을 바뀌놓을 수 없을 것" 이라고 전했다.

미살 빈 팜 알-살라미 아랍의회 의장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를 전쟁으로 인한 영토 병합을 금지하고 팔레스타인 자치권을 인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42호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외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리아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 백악관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함께한 자리에서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하고 있다.

골란고원은 1967년 이른바 '6일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해 왔지만 국제법상 시리아 영토로 분류된다. 국제사회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점령 및 합병을 불법으로 평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주 이스라엘 미국대사관을 분쟁지역인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등 친 이스라엘 행보를 지속해 왔다. 일각에서는 이를 미국 내 유대계 지지를 노린 행보로 분석한다.

# 멕시코에서 암매장지 다수 발견

멕시코 동부 지역에서 최소 15구의 시신이 묻힌 암매장지가 발견됐다.

지난 28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멕시코만과 접한 동부 베라크루스 주 검찰과 실종자 가족 단체는 리오 블랑코 마을 인근에서 발견된 암매장지에서 시신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 검찰은 수색팀이 현재까지 12구의 시신을 수습했으며 3구가 더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아직 수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검찰은 리오 블랑코 마을 인근에서 다른 암매장지 여러 곳을 발견, 추가로 발굴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마약범죄 조직 간에 과비린내 나는 총돌이 잦은 멕시코에서 정부의 살인 관련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집단 암매장지가 발견되는 일이 흔하다. 마약깡단이나 인신매매 조직들이 경쟁 조직원들이나 미국으로 향하는 무고한 중미 이민자들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뒤 한적한 곳에 집단으로 매장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국이 수색에 미온적이라 실종자 가족 단체들이 스스로 나서 제보를 토대로 발굴에 나서곤 한다.

멕시코 정부가 마약범죄 조직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난 2006년 12월 이후 공식 집계한 사망 인원만 20만 명에 달한다. 이 중 몇 명이 마약범죄 조직과 연관돼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 타운뉴스 업소록

# "리스팅 신청하세요!"

###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Fax: \_\_\_\_\_

업소명(한글):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714.530.1367 / Fax: 714.530.6473

11501 Brookhurst St. #202., Garden Grove, CA 92840

townnewsusa.com

